

【국어 산책】

다시 한글날을 맞으며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1. 한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004년 10월 9일 다시 한글날을 맞으면서 나는 새삼스럽게 '한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져 본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주위로부터 변변한 사랑을 받아 보기도 전에 지식인들에게서 '암글'이니, '언문'이니 하는 이름을 들으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당했던 한글. 그 이름처럼 부너자나 무식한 백성들이 쓰던 한글이 오늘날에는 버젓이 부너자나 무식한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인이 함께 쓰는 글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지금, 왜 이런 새삼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2년 전에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흡수하여 합병하면서 거대 은행으로 발돋움하였는데 그들이 합병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국민은행 각 점포에 내걸린 '국민은행'이란 한글 간판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KB'라는 로마자 간판을 내거는 작업이었다. 국민은행보다 조금 앞서, 정부 투자 회사였던 '한국통신'이 완전히 민영화되자 이름을 '케이티'로 바꾸고 본사와 각 지역에 있는 지사 및 관련 건물에 'KT'와 'KT Plaza'라는 로마자 간판을 내걸었다. 국민은행보다 조금 늦게, '한국담배인삼공사'라는 별로 쓸모없는 국영 기업

체가 민영화되면서 그들의 간판을 'KT&G and you'로 바꿔 달았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들의 상호가 최소한 영문으로 'KT&G'로 바뀐 모양이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미지 통합 작업을 하면서 한국어 이름을 영어식으로 바꾸고 간판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기업체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 그 산하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기업 등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거의 대부분 영어로 이름을 짓고 로마자로 그것을 내걸어 광고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명박 시장이 취임한 서울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누가 'Hi Seoul'이라고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어디에나 그 영문 인사가 내붙어 있고 각종 시내버스에는 큼지막하게 알파벳이 적혀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문자로 쓰면 국제화한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시도가 신선하게 보이는 반면에 한글로 쓰면 촌스럽고 구태의연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 자국어를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정부 각 기관과 공공 단체가 앞장서서 로마자 표기를 일삼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앞을 다투어 로마자 상호로 광고하는 오늘의 유행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그들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한다. 국제화, 세계화는 지금처럼 영어 일변도, 영문 일변도로 나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2. 한글 없는 옥외 광고물은 사라져야

그래서 나는 지금 '한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다. 한글이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어 일변도식 의식이 우리가 세계 사람들과 사귀고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2년 전에 나는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그리고 몇몇 학자들과 지식인들을 설득하여 국민은행과 한국통신의 로마자 상호에

대해서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원이 한글이 적히지 않은 간판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려 주었다. 법원은 최소한 'KB'를 'KB국민은행'으로 'KT'를 'KT케이티'로 표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여기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글을 병기함으로써 영어를 모르는 국민도 불편함이 없이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내가 속한 국어문화운동 본부가 행정자치부에 외국 문자 간판의 규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 문자 간판을 규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그러나 기업은 이에 대해서 여전히 불멘소리를 늘어놓는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편협하게 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우리의 한글에 대한 인식, 한글이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최소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이라도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한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무엇일까?

3. 한글에 감사하기

요즘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고 한다. 우리 젊은 연예인들이 각 나라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린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면 그 나라에서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이 그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존재가 현재로서는 유익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문화는 어떤 식으로든 일본이나 중국 또는 동남아와 다를 필요가 있다. 다르면서도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것

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문화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한글을 지키려 하는 노력을 세계화의 걸림돌이나 진부한 민족주의적 편협성으로 돌리지 않고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화 상품을 이용해서 세계인들에게 우리를 내보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글이 한국인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한국 문화가 그들과 다름을 알게 하고, 한국 문화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가꿈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글은 우리가 세계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해 주는 데 매우 유용한 문화 콘텐츠가 된다. 그들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한글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한글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다. 한글은 더도 덜도 아닌 우리의 글자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지식을 늘리고, 멀고 가까운 사람들과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사용되는 연장이다. 자기의 능력을 길러 주고, 우리끼리 ‘우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어 주는 끈이다. 그런 끈을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끈 대신에 다른 끈을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남이 되려는 발상,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우리 정체성에 의심을 품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하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글에 대해서 더도 덜도 말고 우리를 서로 가깝게 이어 주는 끈으로서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감대는 바로 ‘우리에게 한글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다.

4. 한글날을 새로운 문화 축제일로

옛날부터 인류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 준 신에게 감사했다. 우리의 추석 명절이나 서양의 추수감사절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행운이다.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한글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에 감사해야 한다. 온 국민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한글에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다. 한글에 감사하는 방법으로 나는 한글날을 21세기형 문화 축제일로 쇠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설과 추석 그리고 대보름이라는 명절이 있지만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형식을 갖춘 축제가 없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도자기 축제, 연꽃 축제, 반딧불이 축제, 나비 축제, 꽃 박람회, 국제 영화제, 국제 연극제, 비엔날레, 엑스포 등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이런 축제는 보통 그 지역의 특성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살려서 축제를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축제의 연장선에서 나는 한글날을 한민족 전체와 세계인을 아우르는 거대한 문화 축제의 날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21세기에 새로운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축제 유형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 한글만큼 지적이고 범인류적인 콘텐츠는 없을 것이다. 인류가 창조한 가장 위대한 작품이 글자라면 한국인은 그 위대한 작품을 필요에 따라서 구상하여 단기간에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민족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글자를 대표해서 한글날이 글자의 날로 지정되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고, 이를 기리기 위하여 문화 축제를 벌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런 좋은 콘텐츠를 살려 세계인을 불러 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5. ‘국어 기본법’의 기능과 한글날

한글날이라면 으레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읊조리고 한글의 우수성이나 실컷 자랑하고 끝나는 기념식 같은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한글날은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고 기뻐하며 온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글자 문화의 태동을 기리는 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먼저 우리가 한글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즐거워야 이웃 나라 사람들도 즐겁게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즐거워지려면 무슨 행사를 어떻게 치르면 좋은지 관료적인 사고가 아닌 참신한 사고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나라가 정성스럽게 뒷받침하면 온 국민이 한글날 경축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한글날 행사가 관료나 몇몇 국어 학자 그리고 관계 기관의 기념행사 중심으로 흐르는 한 우리에게 한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은 좀처럼 어려울 것이고, 한글날이 우리의 축제가 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문화 행사를 하나 잃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법부터 잘 정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부 부처 사이에서 다투고, 일부 공무원과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은 노는 날이 하루 늘어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삼는 것에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 이런 못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공무원이고 기

업인이며 정치인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어 기본법’에는 한글날에 “국가는 각종 기념행사를 행하고 국어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포상을 실시하는 등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조문으로는 한글날이 종래의 세종문화회관 기념식 수준을 넘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던 규정을 ‘국어 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으로 옮겨 국어 정책과 맥을 같이 하도록 이 행사들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어 기본법’이 금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한글날 축제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정도에서 나의 이야기를 마치려 한다. 나는 한글이 기업의 세계화를 가로막는다고 인식하는 기업인들, 이에 편승하여 한글을 무시하려는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기를 바란다. 또 로마자로 써야 글로벌 시대에 발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인과 공무원들도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업인을 포함한 우리 민족은 우리에게 한글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한데 모아 한글날을 온 국민이 참여하는 성대한 문화 축제의 마당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 바란다.